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행복하고

도교육청, 내일 교육과정 세움 실천 워크숍 개최

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3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세움 실천 워크숍이 오는 15~16일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전주왕의지빌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행복한 교

육과정 세우기를 주제로 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참여를 희망한 초등교사 80여 명이 함께 한다.

이 워크숍은 크게 주제강연과 분임별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중일(군산회현초) 교장은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학교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학

생들의 삶을 가꾸기 위한 교육과정의 실천방법들을 소개한다.

또 김청미(전주덕일초) 교사는 연구부장으로서 학교공동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과 실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주제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참여 교사들이 사전 희망 주제에 따라 10개 분임으로 나눠 학교 교육과정 나눔 또는 학년별 학급 교육계획을 공유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

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미래사회 주인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을 담기 위해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2020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내일부터 특성화고 신입생 입학전형 실시한다.

도내 특성화고 24교, 일반고(전문계열 설치교) 5교는 15일~18일까지 특별전형 신입생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다. 면접 등 전형은 19일이며 합격자는 11월 20일 발표한다.

선취업 후진학 형태의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학과별 정원의 10% 이상 모집 정원 이내에서 선발하며 지원자격은 취업의지 및 기업승계가 명확하고, 성장가능성과 창의성을 지닌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소질·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는 20~22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 이뤄진다.

전북교육청은 2019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라 심폐공고 전자제어과를 드론항공과로 2개 학급 개편하는 등 9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개편에 나서면서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졸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18명이 2019학년도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하는 등 인재를 배출하고 있어 특성화고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취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특성화고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남과 다른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서

전주비전대, 'VISION Start-up Festival' 개최... 창업전문가 초청 특강 '큰 호응'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창업교육센터는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재학생을 위한 비전창업축제 'VISION Start-up Festival-청년, 창업을 만나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청년창업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전창업축제는 청년창업가 및 창업전문가들을 초청해, 특강과 토크쇼로 진행됐다. 이날 재학생 600여 명이 참여해 취·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현장에서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창업축제의 제1부는 HY더치쿱 임혜영 대표의 '창업성공스토리 I'이라는 미니특강에 이어 전북대학교 오현성 교수의 '개인 및 문화적 특성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주제이론 이현기 대표의 '창업성공스토리 II'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임혜영 대표는 "남과 다른 본인만의 키워드가 필요하다"며 "전공 이외에 독창성과 자신감을 가져라"



전주비전대가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재학생을 위한 비전창업축제를 개최했다.

고 말했다. 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업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됐다"고 답했다.

2부에서는 모모파트너즈 김경호 대표의 '창업성공스토리 III' 에원대학교 문운걸 교수의 '성공하는 사업기회 찾기' 화인주식회사 나홍수 대표의 '창업성공스토리 IV' 가 진행됐다.

한편 창업교육센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창업캠프, 창업 전문가 초청 특강, IOT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석훈 창업지원센터장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소통 기회를 통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취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특성화고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캠프 열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전주 왕의지빌에서 실험실 창업 지원을 위한 Pre-TIPS 연계전략 캠프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Pre-TIPS는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의 사전 지원 단계를 말한다. 이번 캠프는 교내 예비창업 실험실팀의 지방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술 및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R&D에 집중돼 있는 예비창업 실험실 팀 조직의 관점을 실질적 창업의 운영 주체인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수적인 기초 경영 지식을 포함한 투자유치 전략과 상품화 전략을 반영해 강의 및 멘토링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TIPS운영사인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구성원들이 자문 전문가로 참여해 예비창업 실험실에 대한 멘토링

을 실시, 예비창업 실험실의 자금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이 논문을 위한 수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기술개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유치해 다양한 예비창업실험실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험실 창업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신종플루 방어 단백질의 발현 메커니즘 규명

정병훈 교수팀 연구성과 '주목'

전북대학교 정병훈 교수(생리활성소재과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팀은 신종 인플루엔자 방어 관련 선천성 면역 단백질의 발현 메커니즘을 규명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 교수팀은 신종플루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의 유전자 발현 비교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의 민감성과 연관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선천성 면역 단백질인 IFITM3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서 발굴, 이 SNP에 결합하는 전사인자와 유전자 발현에 따른 기능 연구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IFITM3(Interferon-Induced Transmembrane Protein 3)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계의 1차 방어선을 구성하는 선천 면역의 구성분자 중 하나로, 신종플루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 광범위한 숙주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 연구의 제1저자인 김용찬 대학원생(생리활성소재과과과 박사과정)은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의 유전형과 건강한 대조군의 유전형에 따른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분석 했을 때, 건강한 대조군의 유전자 발현량이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며, "이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IFITM3 유전자의 프로

모터 유전자 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정병훈 교수는 "본 연구에서 규명된 발현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의 유전형을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 민감성 예측 등에 활용을 기대한다"며 "IFITM3 유전자의 상부 영역에 다수 분포해 있는 가족군 유전자 발현을 대상으로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조절 시스템에 대해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면역학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IF = 8.213) 온라인판(11월 4일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2018년 이공학개인지초연구사업, BK21플러스 사업단 및 글로벌박사양성사업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한편, 김용찬 대학원생은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됐고, 석·박사 과정 3년간 15편의 SCI(E) 논문(주저자 13편)과 국내특허 1건을 발표했다. 특히 주저자 논문 중 IF가 4점 이상인 저널이 4편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한민국소셜미디어 교육부문 대상

높은 콘텐츠 활성화 인정 받아

전주대학교는 13일 '제12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은 SNS를 활용한 고객지향적 소통마케팅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는 행사다. 총 200여 개의 기업과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소통지수(ICSI), 소셜소통지수(SCSD), 콘텐츠 경쟁력지수(CQI)를 기반으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고객 평가를 거쳐 전주대가 고객과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대는 종합지수 AAA 83.51점으로 100대 기업 평균 76.12점과 100대 공공기관 평균 76.68점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과 높은 고객의 참여를 이끄는 콘텐츠 효과가 긍정적인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주대 SNS 채널과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과 차별성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학교 콘텐츠'와 중고교생, 타 타학생, 일반 시민까지도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일반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 콘텐츠'는 '수퍼스타를 찾아라'와 '전주대 학과 소개'가 있다.

'수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생, 교직원들을 홍보하고, 최근 이슈와 트렌드에 맞춰 학과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솔직히 가솔로 말해'와 '대학 생활 브이로그(VLOG)'는 누구나 가볍게 보고 즐기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반 콘텐츠'다.

또한, 재학생으로 구성된 홍보대사가 SNS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해 최신 트렌드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쌍방향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전주대 관계자는 "전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전주대 SNS에 방문해서 편안하게 소통하고 즐거움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